

2024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

국어·수학 표준점수 만점 올라가... 영어, 1등급 비율 줄어든 듯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분석 및 대입 정시 전망을 발표했다.

전북교육청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2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정시에서는 국어·수학영역이 어려워져 표준점수 만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두 영역의 표준점수가 올해 정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표준점수는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만점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는 원점수 만점자가 얻은 국어 표준점수가 134점, 수학 표준점수가 145점이었으나, 전년도 시험에서는 합격선이 높은 대학을 지원할 때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유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어·수학의 표준점수 만점이 모두 140점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정영역에서 고득점을 얻은 수험생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성적을 얻은 수험생이 입시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작년 수능에서 비교적 어려웠던 영어영역이 올해는 더 어려웠다.

전년도 영어 1등급 비율이 7.83%였지만, 올해는 4%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탐구영역은 비교적 평이했으며, 표준점수 만점이 대부분 70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효선 과장은 올해 수능이 다소 어려웠던 만큼, 본인의 성적이 다소 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후 정확한 성적이 발표되면 예상보다 높은 표준점수나 등급이 나올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시 대학별 고사 등에 적극 응시하되, 수시 모집인원 이월 등으로 인한 정시 모집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정시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4년 대입 정시 입시 설명회'를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면 상담도 12월 1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12월 14~21일 평일 오후 4~10시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정시 지원 학생들을 위해 화상 진학 상담도 마련했다. 화상 진학 상담은 원격회의 플랫폼을 활용,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예약은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www.jbe.go.kr/jimn>)에서 하면 된다.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4년 대입 정시 입시 설명회'를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면 상담도 12월 1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12월 14~21일 평일 오후 4~10시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정시 지원 학생들을 위해 화상 진학 상담도 마련했다. 화상 진학 상담은 원격회의 플랫폼을 활용,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예약은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www.jbe.go.kr/jimn>)에서 하면 된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23 대학평가'에서 비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대학 53곳을 대상으로 교수연구·교육여건·학생교육·평판도 4개 부분의 33개 지표로 이뤄졌다.

이에 전북대는 교육여건에서 국내 7위, 교수연구 부문 국내 11위에 오르는 등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와 교수 연구 경쟁력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실제로 전북대는 한국표준협회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지방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평가 주체인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은 전북대의 약진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 활동을 대학에서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집중 조명했다.

전북대가 지난 5월 2차전지, 탄소복합소재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손잡고 융합연구원을 구성하기로 한 것과 향후, 10년간 200억 원을 지역기업·대학 융합연구에 투입하기로 한 것, 그리고 올해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비수도권 대학·국립대 1위

전북대, 중앙일보 발표 '2023 대학평가'서 지역사회 연계 연구 활동 적극 지원 성과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도 선정된 것 등을 순위 상승의 대표 이유로 꼽았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지역·산학협력 분야의 혁신을 위해 새만금-전주·완주-익산-정읍을 삼각형으로 잇는 대학-산업 도시 트리아앵글을 구축하고,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 지역에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센서반도체, 전주·완주에는 농생명 과학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팻바이오와 동물약품 등 지역의 주력 첨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설립과 산하에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산?학?연' 싱크탱크 구축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재생시켜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번 중앙일보 평가를 통해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23 대학평가'에서 비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대학 53곳을 대상으로 교수연구·교육여건·학생교육·평판도 4개 부분의 33개 지표로 이뤄졌다.

이에 전북대는 교육여건에서 국내 7위, 교수연구 부문 국내 11위에 오르는 등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와 교수 연구 경쟁력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실제로 전북대는 한국표준협회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지방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평가 주체인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은 전북대의 약진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 활동을 대학에서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집중 조명했다.

전북대가 지난 5월 2차전지, 탄소복합소재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손잡고 융합연구원을 구성하기로 한 것과 향후, 10년간 200억 원을 지역기업·대학 융합연구에 투입하기로 한 것, 그리고 올해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전주대 'JJ기업탐방단'

최종 성과 보고회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7일 'JJ기업탐방단'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JJ기업탐방단은 재학생 29명(8개 팀)이 참여해 (주)정석미칼, 비나텍(주), 대승정밀(주) 등 도내 우수기업 8개 사 직무 현장을 탐방하며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현황 및 채용 트렌드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목표, 주요 사업 방향, 직무 핵심 역량, 기업환경 분석 등으로 수집된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디자인학과 임주은 학생은 "기업 탐방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히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직자 인터뷰가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상행 센터장은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도내 우수 기업에 대한 구직 청년들의 인지도 제고와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는 20일 본교에서 비나텍(주)과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비나텍, 지역에너지 전문인력양성 '맞손'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 공동 협력기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일 본교에서 비나텍(주)과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은 비나텍(주) 성도경 대표이사와 전주대 박진배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력변환기술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력 에너지 분야 대학원생 대상 산학 장학금 선별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현장실습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이로써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대학

원생(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중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분야의 학생을 선발하고, 비나텍(주)에서 학비 등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성도경 대표이사는 "비나텍은 에너지 저장 장치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를 생산하는 전문 회사로,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의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욱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비나텍이 세계 제1의 슈퍼커패시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R&D 투자는 물론, 지역의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데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인

재 육성을 위해 전주대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대 김은수 교수(전기전자공학과)는 "비나텍과 같이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인력수요 및 애로 기술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나텍(주)은 에너지저장장치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 에너지고출력 활성탄소전지) 제조사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카본을 기초로 한 연료전지 부품(지지체, 촉매, MEA) 등 친환경적인 미래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전북의 대표 기술 강소 기업으로 2020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재학생들과 장애학생 직업교육 마무리

장애학생 직업교육 마무리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는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직무체험 및 직업평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우석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애를 넘어 공감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동행 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교육은 재활상담학과 재학생들과 Win-Win 직업평가 마스터 팀이 종합관 실습실에서 이뤄졌다.

직업교육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휠체어 분해부터 세척, 소독, 조립 등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깨끗해진 휠체어를 보며 기분이 좋았다"면서 "장애로 인해 직업 경험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와 도움으로 직업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취업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정승원 교수는 "특수학교(급) 재학생과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진로개발 기회를 통해 취업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대, 국내 첫 '감정평가 연계전공' 신설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조 원 시장 규모의 감정평가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손을 맞잡았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대에 국내 최초의 감정평가 연계전공 학위과정(감정평가학사) 개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17일 오후 전북대 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양길수 회장, 정운천 국회의원, 한국부동산원 강신만 전주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국내 최초의 감정평가 연계전공 학위과정(감정평가학사)을 개설하고, 감정평가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감정평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사 학위 과정인 감정평가 연계전공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부동산, SOC보상업무, 기업가치, 무형자산, 환경가치 등 다양한



지난 17일 오후 전북대 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정운천 국회의원, 한국부동산원 강신만 전주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연계전공 학위과정 개설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

분야의 감정평가 산업 수요 증대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함께 한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최초의 감정평가 연계전공이 전북대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내 첫 감정평가 연계전공 개설을 위한 탄탄한 연대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북대가 감정평가산업 분야 우수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위탁운영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위기학생 심리지원 역할 '톡톡'

올 321명 이용... 조기 발견·상담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전북교육청에서 위탁운영 중인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가 위기 학생들의 심리 지원에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이용자는 학생 133명·학부모 100명·교사 88명 등 총 321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 이용자 133명 중 109명은 병원형위(Wee)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등과 연계해 심리지원을 받았다.

전북대병원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마음들여다 BOM' 프로그램을 개발, 도내 20개 학교에 정신건강전문가팀이 방문해 전문상담교사에게 '긍정심리' 기법과 '감정 다스리기', '자기 일상 관리' 등의 인지훈련 활용 방법을 교육했다.

이에 고창 A중학교 교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를 통해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발견과,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인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를 운영,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내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 12월 5~8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전역기간이 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퇴직원,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소

속기관장(유·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4년 1월 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